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7/3℃ 목포 -4/3℃ 여수 -4/4℃

단기 4343년 (음력 11월 24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69호 1판 2010년 1월 8일 금요일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옛 도청별관 아무리 보수해도 10년 뒤엔 무너진다"

안전진단 결과 발표…보존 난제로

옛 전남도청 별관이 아무리 보수·보강을 해도 10년 뒤에는 무너질 수 있다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다. 별관 보존을 주장해왔던 5·18단체, 시민단체 등은 안전진단의 공정성에 의의를 제기하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우려된다. 〈관련기사 3면〉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주)한국구조안전기술원은 7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해 50일 간 안전진단을 해보니 일부 지반침하가 심각하고 주요 골조를 구성하고 있는 기둥 및 보에 이미 콘크리트의 탄산화 및 철근 부식, 균열 등이 발견돼 보수·보강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고 발표했다. 이로 인해 상시적인 하중은 물론 지진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으며,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E등급이라고 판정했다.

안전진단을 전담한 한국구조안전기술원측은 이처럼 별관의 안전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1950년 2층으로 건립된 별관을 5차례에 걸쳐 각기 다른 공법으로 증축해 40~60년간 사용하고, 지하철 1호선이 별관 지하 17m 아래를 지나면서 지반침하 등이 가속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강일 구조기술사는 "원래 벽돌을 쌓아 기둥을 만든 건물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수차례 증축하는 과정에서 철근이 벽면에 노출되고, 벽돌을 제대로 쌓지 않는 등 부실한 유지·관리로 건물 곳곳에 심각한 균열, 콘크리트 재료의 분리 현상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용역사는 이에 따라 안전진단 시 통상적으로 제출하는 '보강·보수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할 때 보수 및 보강방법의 제시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이 구조기술사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상태에서 원형의 보전은 가능할 것이나, 아무리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8일 서울에서 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문위원회에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하고, 보존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까지 전문가, 지역여론 수렴 등을 거쳐, 이를 설계자인 우규승씨에게 전달, 오는 6~7월께 아시아문화전당 새 설계안을 받아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추진단 김홍범 전당시설과장은 "문광부와 광주 10인 대책위가 부분 존치를 합의한 이상 이 결과를 존중해 최대한 보존 노력을 하겠다"며 "앞으로 전문가 및 지역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남아 있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옛 도청별관 원형보존을 주장해 왔던 광주·전남 시·도민대책위와 5·18 단체 등이 이번 조사의 신빙성과 객관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수만 5·18 유족회 회장은 "보존을 주장했던 측도 참여했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추진주체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조선대 미대 실기시험 "집중" 2010학년도 조선대 미대 미술학부 수능 실기시험(가군)에 응시한 수험생들이 7일 오전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강의실에서 진지한 모습으로 작품을 다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세균 "시민배심원제 도입"

"야권 연대 공동지방정부 구성 정권 심판할 것"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화두로 야권 연대를 통한 공동 지방정부 구성,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 공천 혁신, 생활정치 실현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지방선거에서 야권 연대와 시민배심원제 도입 등을 선언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선거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 기사 3면〉

정세균 대표는 7일 오전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6·2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대한 중간평가와 심판의 장"이라고 규정하고"과감한 문호개방, 승리하는 연대, 함께 만드는 공동지방정부로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민주당의 승리로 구성되는 지방정부에서 다른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지방정부를 운용할 것"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다른 정당이 승리하는 경우에도 한나라당에 의해 유지된 지방정부보다 훨씬 유능한 지방정부 운영을 위해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대표가 제안한 공동지방정부는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해 지방선거에 나서 승리할 경우 정무 부단체장 등 정무직에 다른 야당 인사를 기용하고, 공약도 연대해 공동실천하는 협상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수도권과 충청권은 물론 호남권에서도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함께 선거연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 대표는 이어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시민공천 배심원제 도입 등 공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혀 호남지역 일부 기초단체장 경선에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대표는 뉴 민주당 플랜에 따른 분야별 정책의제 제시를 통해 생활정치 구현에 나설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정동영 의원의 복당과 관련, 정 대표는 " 그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고 있는 것 아니냐"며 조기복당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여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정 대표는 "대한민국은 서민경제, 민주주의, 남북관계의 3대 위기에 더해 지방경제와 의회정치까지도 위기로 몰아넣고 있고, 5대 위기의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無시멘트 콘크리트' 개발 양근혁 목포대 교수 1월의 과학기술자상

목포대 양근혁(42·건축공학) 교수가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1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시멘트 없는 저탄소 결합재와 경량 골재 및 유효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친건강·다기능 그린 콘크리트를 개발해 콘크리트 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공로로 양 교수를 1월의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양 교수는 최근 6년간의 연구 끝에 산업 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플라이애쉬(석탄재) 등을 사용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무(無)시멘트' 콘크리트 2차 제품 실용화에 성공했다.

/채희종기자 chae@

수능 영어 '한국형 토익'으로 대체 검토

안병만 장관 "2013년 대입 수시부터 활용"

'한국형 토플·토익'을 목표로 정부가 개발 중인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 현재 중학교 3학년생들이 치르게 될 2013학년도 대학입시에서부터 수시모집 때 전형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험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외국어(영어) 시험을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3학년부터 대입 수시전형에서 대학들이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성적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항 개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2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3회 예비시험을 시행했다.

교과부는 2008년 12월 영어교육 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토플, 토익시험에 의존하는 비율이 너무 크다며 '한국형 영어시험'을 개발해 2012년 처음 시행한 뒤 수능 외국어(영어)영역을 이 시험으로 대체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과부는 2012년 공청회 등을 거쳐 수능 대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만약 대체하는 것으로 결론나면 '3년 예고제'를 거쳐 2015년 이후(2016학년도 이후)부터 수능 영어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광주 온 '피겨 전설' 미셸 콴 단독인터뷰 ▶5면